

- 주요 뉴스: 미국 S&P500 지수,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되면서 6,000pt 일시 상회
 -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11월 73.0), '기대' 개선으로 7개월래 최고
 - ECB 라가르드 총재, EU 지도자들에게 자본시장 연합 가속화 촉구
 - 중국 정부, 지방정부 부채 교환을 위해 부채한도 상향 조정(+6조위안)
 - 국제금융시장: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선반영 움직임 지속
 - 주가 상승[+0.4%], 달러화 강세[+0.4%],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차기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및 규제 완화 기대로 추가 상승
유로 Stoxx600은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및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로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정책 효과 선반영 및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
유로화는 0.8% 약세, 엔화는 0.2% 강세, 위안화는 0.6% 약세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연준 금리인하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
독일 10년물 금리는 연립정부 붕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큰 폭 하락
- ※ 뉴욕 1M NDF 증가 1396.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7.9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11/8일	11/7일	전일대비			11/8일	1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95.5	5,973.1	+0.38%	국채 금리 10y	미국	4.30%	4.33%	-3bp
	유럽	506.63	509.92	-0.65%		독일	2.37%	2.45%	-8bp
	중국	3452.30	3,470.7	-0.53%		영국	4.44%	4.50%	-6bp
	일본	39,500	39,381	+0.30%	CDS 5y	한국	33bp	33bp	-0bp
	한국	2,561.2	2,564.6	-0.14%		중국	62bp	62bp	+0bp
환율	달러지수	104.95	104.51	+0.42%	위험 지표	EMBI+	-	368bp	-
	유로화	1.0718	1.0805	-0.81%		VIX	14.94	15.2	-1.71%
	엔화	152.64	152.94	+0.20%		WTI유	70.38	72.36	-2.74%
	위안화	7.1845	7.1424	-0.59%	원자재	구리	430.6	443.15	-2.83%
	원화	1,397.0	1,386.0	-0.79%		금	2,684.8	2,706.7	-0.8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S&P500 지수,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되면서 6,000pt 일시 상회

- S&P500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로 6,000pt를 일시적으로 상회했으며 1년래 최대 주간 상승 폭을 기록(종가는 5,995.54pt). 부문별로는 유틸리티(+1.8%), 개별 주 중에서는 테슬라(+8.2%)가 상승을 견인
- 미국 대선 개표에서는 공화당이 확보한 하원 의석수(한국시간 7시 기준, 공화당 211, 민주당 199)가 과반에 가까워지면서 레드 스위프^{Red Sweep} 가능성이 유지
- 시장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경제성장이 강화되고 규제가 완화되며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 중. 다만, Murphy&Sylvest는 향후 통과되는 법안은 공약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경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기대' 개선으로 7개월래 최고

- 미시건대가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0월 70.5에서 11월 73.0으로 상승하면서 7개월래 최고치 기록. 현재 상황(64.9 → 64.4)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74.1 → 78.5) 개선에 기인. 해당 지표는 11.4일에 종료되어 대선 결과에 대한 반응은 미반영

■ ECB 총재, EU 지도자들에게 자본시장 연합 가속화 촉구

-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의 경쟁력에 대해 논의하는 EU 정상회의 자리에서, 유럽 내 저축 자금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인재 유출과 자금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EU는 국가 간 장벽을 낮추고 자본시장 연합을 구축해 혁신을 촉진하는 데 더욱 적합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발언

■ 중국 정부, 지방정부 부채 교환을 위해 부채한도 상향 조정

- 쉬홍차이^{许宏才} 재정부 부부장^{차관}, 11.4~8일 진행된 전인대(NPC) 상무위 회의 결과, 지방정부 부채한도(특별채권 발행)를 6조위안(29.52조위안 → 35.52조위안)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해당 증액분은 주로 LGFV^{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를 통해 축적된 '숨겨진' 부채*를 교환하기 위한 신규 채권을 발행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

* 중국 정부는 '23년말 기준 14.3조위안에 달하는 숨겨진 부채를 '28년 2.3조위안으로 감축할 계획

- 중국 위안화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0.6% 약세. ING는 금번 발표된 부양책 규모는 당초의 예상에는 부합했지만, 트럼프 당선 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한층 강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실망한 것으로 평가

■ 영란은행(BoE), 주변국 정치적 여건 변화에 대한 경계감 피력

-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추가 정책금리 인하를 검토하겠지만, 통화정책에 미리 정해진 것은 없으며 영국은 개방 경제로서 글로벌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금리 경로는 경제적 혼란에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 최근 미국(대선)·독일(연정 붕괴)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지적

■ 일본 가계, 실질수입 감소 속 소비지출 절감 움직임 지속

- 총무성이 발표한 9월 가계 소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해 전월(-1.9%) 및 예상치(-1.8%)를 상회(실수입은 1.6% 감소). 총무성 관계자는 가계가 식료품을 저가 품목으로 대체하고 저축을 늘리는 등의 형태로 실질수입 감소에 대응했다고 설명

■ 캐나다, 노동시장 부진 이어지면서 12월 빅컷 기대 유지

- 연방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발표한 10월 일자리수는 1.45만개 증가(전월 대비), 고용률은 0.1%p 하락(60.6%). 시간당 임금(+4.9%_{yo})은 전월(+4.5%)보다 상승세가 가속화되었으나, 시장은 고용 부진에 주목해 높은 금리인하 기대(12월 -155%)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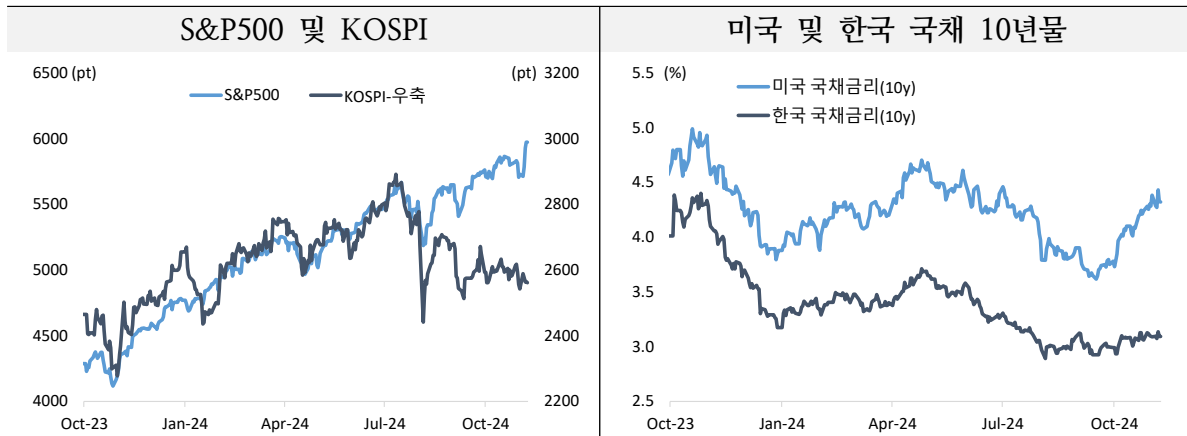
■ 동유럽 주요 신흥국들, 인플레이션 예상 경로 상향 조정

- 폴란드 중앙은행(NBP),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CPI 상승률이 '25년 1분기 중 정점에 도달한 후 '26년 1분기 목표 범위(2.5% ± 1.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한 폐지 여부를 주요 변수로 지목 * 4월, 7월, 11월 발표
- 튀르키예 중앙은행(TCMB),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24년, '2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44%(기존은 38%), +21%(14%)로 수정. 카라한 총재는 서비스 부문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물가안정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입장을 단호하게 유지하겠다고 언급 * 2월, 5월, 8월, 11월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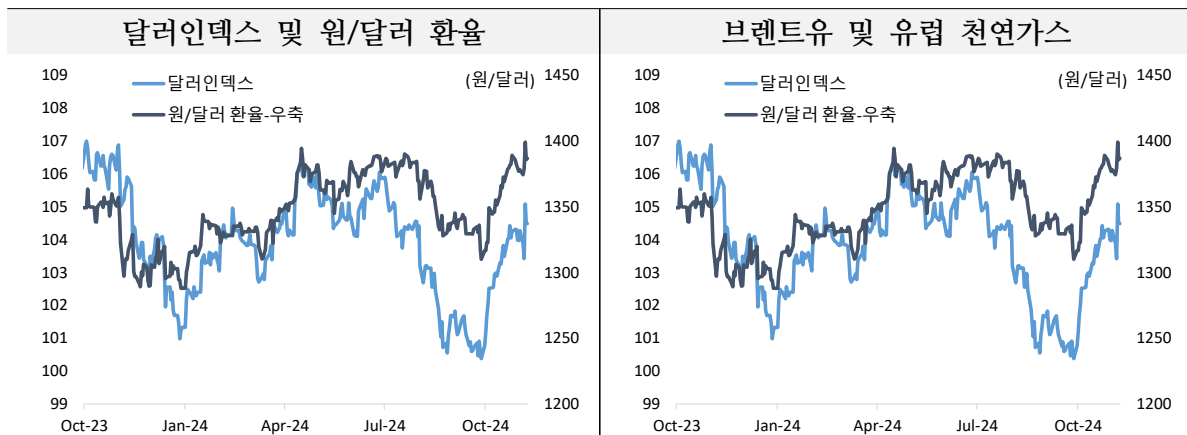
주요 경제·금융 이벤트

- 일본 9월 경상수지, 브라질 9월 재정수지, 멕시코 9월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 발표. 일본은행(BOJ) 10.30~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공개(현지시각 11.1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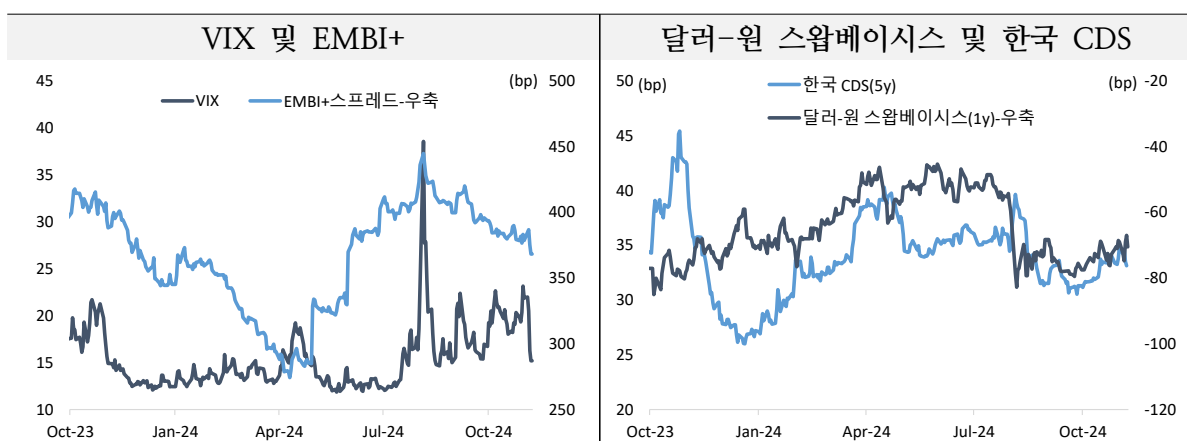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1, E-mail swlee@kcif.or.kr